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준식 공회라 김미희 김정연A 김준구 김춘화 김형국 박금엽 박복례 박순웅 박순자 방현욱
배세영 석애자 송철기 오영주 윤영준 윤조훈 이근자 이미자 이영순 이태일 이희환 전병구
전순봉 정경석 조규례 조규영 채명업 채희춘 허봉선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기택 김만형 김지한 김희규 박권제 박금엽 박복례 박복순 박부웅 박성대 박순웅 방현욱 송다해
윤정호 이근자 이미자 이상희 이선분 이영순 이옥남 이경순 이태일 이향교 임형문 전순봉
정선영 조규례 채명업 최성현 최정규 허봉선 홍유정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병을 김정자 김중익 김춘화 민옥희 박금엽 박부웅 박순웅 박희성 방현욱 백경자 여운희
유은자 윤정호 이경자 이미자 전병구 전순봉 채명업 채희춘 허봉선 무 명 황수현 중고등부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정훈 김준구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정숙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자 이성이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옥남
이인숙 전병구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양일석 이노을 전지선 정승현
무 명

월정현금

홍유정

주간 성경연구

32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빌립보서 4장 14절 ~ 23절			
월요일	레위기 1장 1절 ~ 17절	목요일	레위기 4장 1절 ~ 21절	
화요일	레위기 2장 1절 ~ 16절	금요일	레위기 4장 22절 ~ 35절	
수요일	레위기 3장 1절 ~ 17절	토요일	레위기 5장 1절 ~ 13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재호	
	전 도 사	이필레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승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앤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회라 정희연
		글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슬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진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옥	A X 국 : 김해철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장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교회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8. 04. 주일 예배 설교
마가복음 9장 38-50절

단호하게, 또 단호하게

설교자 이진우 목사

죄는 적당히 구슬리고 타협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 두면,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단호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 손발을 찍어 버리는 환이 있더라도 단호해야 합니다.
 - 참으로 온유하신 예수님이 손을 잘라 버리고, 발을 찍어 버리고, 눈을 빼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본문 43-47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을 용서하셨던 인자와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토록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멸하고, 죄인은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사람을 또한 이러한 단호한 태도로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근원인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불에 태워지는 것과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나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을 수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가장 미려한 선택이며 그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수족을 자르고, 눈을 뽑는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유혹을 달콤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나에게 유익 주는 것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즉 죄의 기준이 나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죄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고 또 단호하게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결국

-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 했습니다. 이는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 중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자신들의 민족과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수많은 유혹도 시험도 핍박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악한 것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하되 피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에는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때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도 듣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되 적당히 싸우며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피흘리기까지 힘써 싸워야 합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당히 싸울 수는 있지만, 죄는 우리에게 대해서 적당히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결국 우리를 삼키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죄의 이런 특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추운 밤 사막에서 주인이 누운 천막 안으로 코를 들이치는 낙타와도 같습니다. 아라비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은 너무 추우니 코만 넣고 있겠다는 낙타의 말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하지만 결국 천막 안으로 낙타의 코, 머리, 앞다리가 아금아금 들어오더니, 마침내 주인의 천막을 낙타가 차지하고, 주인은 춥다추운 사막에서 떨면서 밤을 지새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 주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처음부터 낙타가 코를 들이밀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덮치려 하면, 성도들은 피 흘리기 까지 싸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결국 사망만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크고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의 다윗처럼 작아 보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골리앗 같고, 어리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1서 5장 4-5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로 결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박살 난 사탄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멀리 떠납니다.
-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요한1서 4장 4절은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는 세상 가운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만,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합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마귀가 더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단호하게 싸우며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5 - 32

2019. 08.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영 준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291(통413)장 (Praise)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김 경 엽 집 사 (Prayer) [3부] 윤 영 준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10장 1~16절[신약p.70] 서 영 속 권 사 [2부] 고린도전서 12장 12, 24-27절 [신약p.278]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Larry Shackley]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1,3부] 가정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진정한 공동체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516(통265)장 다 같 이 (Praise)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박 권 제 장 로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성 시	시편 32편 11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295(통417)장 다 같 이 큰 죄에 빠진 나를
기 도	채 만 기 집 사
성 경 봉 독	시편 92편 1~15절[구약 p.869] 사 회 자
찬 양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결말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359(통401)장 다 같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전순봉권사] 이 명 희 권 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4장 23절[신약p.212] 인 도 자
설 교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루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루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금요기도회]

이번 주(8/16) 금요기도회는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합니다.

-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주일학교 모든 여름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녀들이 주신 말씀과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물질을 후원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5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 [장학위원회 모임]

2019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로템나루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18일) 찬양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며, 2019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 [8월 행사 안내]

8월 18일(주일)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및 2019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

8월 22일(목) 전도팀 일일수양회

8월 25일(주일) 주일학교발표회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 월례회(3부 예배후/본당)		*남전도회 월례회(3부 예배후/본당)
*장학위원회 모임(2시/로템나루)		*교육위원회 월례회(찬양예배후/로템나루)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이선분 권사	김민지 집사	에스더여전도회	윤영준 장로	에스더여전도회	요한 남전도회
다음주	석애자 권사	윤예원 청년	김경자 권사	임형문 집사	사랑2 개봉4 총성1 소사	유초등부

8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31주(4일)	채만기 집사	최성현 장로	김순화 권사	배경철 장로	김경엽 집사	이연숙 권사
	32주(11일)	김경엽 집사	윤영준 장로	서영숙 권사	박권제 장로	채만기 집사	이명희 권사
	33주(18일)	최상걸 집사	윤조훈 장로	김순옥 권사	임만순 장로	김종진 집사	전순봉 권사
	34주(25일)	박종삼 집사	강영성 장로	송영숙 권사	최성현 장로	최상걸 집사	임영득 권사
예배안내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